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전달식 모습들. 지난 4월 6일 10회차를 맞았다. 이를 통해 100명의 학생이 총 1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포항 원법사 △제주 관음사 △구례 화엄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륵사 △고창 선운사 △안양 삼막사 △보은 법주사 △용인 서봉사 △시흥 법련사의 전달식 기념촬영들.

사찰–지역 재학생 연결…'장학포교' 새장 열다

10회 맞은 동국대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는 동국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결연한 원력에서 시작됐다.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학교, 지역 사찰 · 학생 잇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이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사찰은 1000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10명의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사찰 · 스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제주 관음사 △구례 화엄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륵사 △고창 선운사 △안양 삼막사 △보은 법주사 △용인 서봉사 △시흥 법련사 등 현재까지 10개 사찰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동참했다. 약 6개월 동안 100명의 학생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가장 큰 특징은 사찰과 지역 학생들의 연결이다. 기존 일반 장학제도는 독지가나 사찰이 학교에 장학기금을 전달하면, 그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 ·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학교에서 지역 출신 장학생 명단을 제공하면, 사찰은 학생들의 자기 소개서와 학업 계획서를 직접 심사한 뒤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 · 포교의 새로운 모델

실제 장학금 지원으로 형성된 사찰 · 학생 간의 유대 관계는 친밀하고 끈끈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장학금 지원 사찰인 포항 원법사의 장학생인 천나경(법학과 3학년) 씨는 "원법사에서 주신 장학금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난 2월에 찾아뵙고 스님들께 인사드렸다. 스님들께서 학생들 미래와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조언해주셨다. 부처님오신날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11년 전부터 전통한과를 제작하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을 알게 돼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고민을 털어 놓기도 한다. 새학기 맞아서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사찰 밴드에도 가입해 사찰 행사 일정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첫 장학생들이 포항 원법사를 찾아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천나경 학생**

'등록금 걱정없는 동국대 만들자'
고문인 자승스님 원력서 비롯돼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서 시작
4월6일 시흥 법련사에서 10회째
총 100명에게 1억원의 기금 전달

사찰–지역 학생 이어 유대형성
수혜 학생 사찰 찾아 감사 인사
단톡방 개설…스님–학생 소통
"어려웠던 스님, 이젠 친숙해요"

화엄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최민석(중어중문학과 4학년) 씨는 "어려웠던 스님이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술회했다. 최 씨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모교인 정광학원 이사장이셔서 어렵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올해 초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화엄사를 찾았는데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주셨다. 세배를 드렸는데 세뱃돈과 복주머니도 주시고, 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염주를 채워주셨다"면서 "감사인사를 드리려 왔는데 도리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제게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주신 장학금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선사 청소년법회의 학생들에게 사용했다.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기회를 주신 건학위원장, 화엄사 주지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대중적 소통창구로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사찰도 있다. 10회차 장학금 전달 사찰인 시흥 법련사 주지 진명 스님은 학내 정각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만큼 전달식 직후 바로 10명의 장학생들과 단체 카톡방을 개설했다. 스님은 '단톡방' 등을 통해 학생들과 꾸준하게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명 스님은 "4월 6일 전달식을 마치고 바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눴다.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련사 근처에서 사는 장학생이 있는데 매번 등하교할 때마다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케줄이 맞으면 그 학생과 등하교를 같이 하려고 한다"고 장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사찰 동참 확대… 장학제도 'Upgrade'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사찰과 학생을 연결해 장학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 8월 말까지 10개 사찰의 전달 일정이 확정됐을 정도로 일선의 호응도 좋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출범 이후 '장학제도' 일신(一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을 신설하고 1기생을 모집했다.

2~4학년 각 10명씩 총 30명이 선발되는 '동국건학장학'은 학업성적 외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생 모임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을 제공한다는 게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방침이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이 곧 동국대 건학이념과 일치한다. 양질의 불교 인재들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115년 전 '교육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동국대를 건립했던 선지식들의 건학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사찰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장학제도가 인재불사와 청년 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발전 · 확대되면 장학포교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경전강의안내

귀의 삼보 하오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전강의를 개설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는 스님들께서 사찰을 운영함에 있어 정기법회는 물론 교양대학(기초교리강좌)이나 불교대학 등 법회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을 선택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특히 25교구)에 거주하시는 본 말사 스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주지 **초격** 합장

■ **강 사** : 능엄승가대학원장 정원스님
■ **교 재** : 우리말 석가여래행적송
■ **접수일정 및 마감일정** : 2022년 3월 ~ 4월12일까지
■ **개 강 일** : 2022년 4월13일 수요일 오후2시 매월 2회 격주
■ **강의실** : 운하당
■ **강의기간** : 2022년 4월13일 ~ 2023년 4월5일까지
■ **수강료** : 매월 5만원
■ **교재준비** : 봉선사 교무국(봉향각)
■ **접 수 처** : 봉선사 포교국 031-527-8568

